

화성소방서 관련 언론보도 현황

구 분	계	보 도 내 용			
		긍정	부정	동정	일반
계	10	.	.	.	10
신 문	10	.	.	.	10
TV(방송)	.	.	.	.	.
기 타	.	.	.	.	.



경기도소방

화성소방서

언론 보도 사항 목차

신문보도

순번	제 목	언론사	면수	페이지
1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있어요!』 제보 이벤트	경기도민일보	·	1
2	화성소방서,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시행	도민일보	·	2
3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있어요!” 제보 이벤트	서울매일	·	3
4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있어요!』 제보 이벤트	선경일보	·	4
5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있어요!』 제보 이벤트	저널25방송	·	5
6	화성소방서,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진행	화성뉴스	·	6
7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화성신문	·	7
8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화성 인터넷신문	·	8
9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경인매일	010	9
10	화성소방서,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시행	도민일보	006	10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화성=홍왕현기자 ● 승인 20200616 09:01 ● 댓글 0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소방유동 발급 이벤트 '여기 소방유동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조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발한 유물정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을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강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세로핀 유출에 대한 소우권이나 만민권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고적인 제보를 부양드린다"고 전했다.



▶ 우리나라 소양석사를 대표하고 있는데 개암(1576년) 이후 16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양군은 유물도 많아서 누구나 알기할 수 있으니 보존하고 있거나 보실 유물이 있으시면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6월 8일(월) ~ 8월 7일(금)

五、设计评价

천문누리집(<https://www.renaissance.or.kr>)에 접속하여
 메뉴에 가서 **소장품 블로그** ➡ **천문산업 자유투자금** ➡ **소장유물등록**
소장유물등록 클릭하여 사진 및 간단 설명 등록
 ※ 유물명: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유물(예: 태양전지 모형)

[해설] 수평에 평행해서 떨어진 것은 빛속도 불변을 수직 수평성공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평에 평행한 빛속도 불변을 수직으로 보는 실험은 갈릴레이의 실험이고 이는 실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아니라 직관적인 결론이라는 점에서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답: B)

Project Lead: [Name]

스발바에 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
(바다, 육지, 화산, 계곡, 조류가끼, 호수, 강, 연못, 습지 등)

第 1 组	第 2 组
-------	-------

유행의 역사성 등을 평가 총 180명에게
소정의 설문 제공(9월 중)

	1997-1998	1998-1999	1999-2000
NP			

[illegible]

화성소방서,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시행

+ -   

용만중 기자 | 승인 2020.06.16 16:04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화성=용만중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소방 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 (<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 dmilbo@naver.com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2020년 06월 16일(화)

국승우 ✉ shilbo@naver.com

국승우 기자 /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 2개월간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란 주제로 2개월간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긴속품 구조 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데 소방서는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아울러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조창래 화성소방서장은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하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2020-06-16 16:11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 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유종갑 기자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이동하 출판부 기자 | 승인 2020.06.16 17:36 | 댓글 0



▶ 우리나라 소방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근대 개항(1876년) 이후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니 보존하고 있거나 보신 유물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8일(월) ~ 8월 7일(금)

제보 대상 유물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참여 방법

전용 누리집(<https://firemuseum.or.kr>)에 접속하여
네이버 검색 [소방물 박물관] → 소방산업 유물자료관 → 소장유물등록
'소장유물등록' 클릭하여 사진 및 간단한 설명 등록
※ 유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음

※ 소방서 창고에서 발견한 옛날 물건들 소독 소방감마선이 제보하거나,
공 시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방관련 유물을 소독 한해서가
제보하는 것처럼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특 점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 총 180명에게
소정의 경품 제공(9월 중)

구분	대상 유물	소정의 경품	제보 방법
소장 유물	소방차, 소화기, 소방복, 소방구급기구 등	소정의 경품	소방물 박물관 누리집
민속품	소방 관련 민속품	소정의 경품	소방물 박물관 누리집

※ 소방물 박물관 소장 유물이나 근대 개항 이후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만 제보 가능합니다.
※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소액 현금 또는 문화유산 지정인정명칭 추천

주최: 화성시청 | 후원: 화성소방서 | 후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후원: 소방청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진행

2020.06.16 10:42 입력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 우리나라 소방 역사를 재조명하고 근대 개항(1876년) 이후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보존하고 있거나 보실 유물이 있으면 적극 제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1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8일(월) ~ 8월 7일(금)

2 참여 방법
온라인 누리집(<http://firemuseum.or.kr>)에 접속
(4차에 걸쳐 [소방유물발굴] -> 소방관련 유물지킴이 -> 소장유물등록 -> 소장유물등록)를 클릭하여 사진 및 간단한 설명 등록
소장유물 등록 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음
1) 제 소방서 명과에서 열거한 개항 이전을 소관 소방유물이며
제보하거나, 불사됨에 따라 소관하고 있는 소방관련 유물을
소관 화재사가 제보는 적절함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3 제보 대상 유물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 소방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가능

4 특 전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 총 180명에게 소정의 경품 제공(9월 중)

A급(50명 선정)	B급(60명 선정)	C급(70명 선정)
15,000원 상당 선물권(기프트콘)	8,000원 상당 선물권(기프트콘)	4,000원 상당 선물권(기프트콘)

 ※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심사 후 문화유산 지정(문화재청) 추천



화성소방서(서장·조창래)는 6월8일부터 8월7일까지 2개월간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서민규 기자  기사공개 2020/06/16 [10:45]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 우리나라 소방 역사를 재조명하고 근대 개항(1876년) 이후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을 찾습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으니 보존하고 있거나 보관 유물이 있으면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
2020년 6월 8일(월) ~ 8월 7일(금)

참여 방법
관용 누리집(<http://firemuseum.or.kr>)에 접속
내셔널 큐비(<http://nationalcubi.com>)에 접속
'소방유물등록' 메뉴에서 사진 및 간단한 설명 등
소방유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음
(예: 소방서 소장/보관물, 개인 소장품, 소방관련 유물 등)
제보의 장소 및 사유를 설명한 후, 유물과 관련된 소방관련 유물
소장처(소방서)가 제보하는 유물만 누구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보 대상 유물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가능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 소방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가능

특 전
유물의 역사상 등을 평가 중 180명에게 소방의 경품 제공(9월 중)
A급(50명 선정) B급(60명 선정) C급(70명 선정)
15,000원 상당 선물관(기프트콘) 8,000원 상당 선물관(기프트콘) 4,000원 상당 선물관(기프트콘)
※ 제보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제보를 받습니다.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해서는 심사 후 문화유산 지정(문화재청) 추천



▲  화성신문

화성소방서(서장 조철래)는 6월8일부터 8월7일까지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 민속품, 구조 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방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화성언터넷신문 2016. 12. 26. 화요일 2016. 12. 26. [14:12]

조금씩 조금씩 100억 원의 부를 만들 수 있는 법

주최: 한국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8 -

화성소방서,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 제보 이벤트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 제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 최규복기자

news114@kmaeil.com

화성소방서,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시행

화성소방서(서장 조창래)는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소방유물 발굴 이벤트 『여기 소방유물 있어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문화재청의 소방안전분야 근현대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과 연계해 소방과 관련된 유물을 찾아 그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유물은 소방차에서부터 작은 배지까지 크기와 종류에 관계 없이 서류, 사진, 책자, 제복, 소화기구, 민속품, 구조·구급기구 등 소방과 관련된 것이면 모두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근대 개항(1876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했던 소방 관련 유물의 소유자나 관계자가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개설한 유물제보사이트(<http://firemuseum.or.kr>)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을 등록하면 된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제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이 유물의 역사성 등을 평가해 180여명에게는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중에 가치가 높은 유물은 심사를 거쳐 문화유산지정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제보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관리권 등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며,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방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용만중 기자